

완도군,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추진

치유센터 방문객 AI 맞춤형 콘텐츠 제공
건강 데이터 맞춤형 관리 시스템 등
프로그램 효과 검증 2026년 완료 목표
건강 증진 기여 개인별 관리 서비스

완도군이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의 명성을 이어나간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해양치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완도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에 나섰다.

'완도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은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찾는 치유객의 건강 정보와 해양치유 자원 정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기술에 접목하여 지능화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군은 2026년 3월까지 △완도해양치유센터 테라피실



완도해양치유센터.

완도군 제공

운영 자동화 시스템 △완도해양치유 빅데이터 수집·분석 관리 시스템 △해양치유 건강 데이터 맞춤형 인공지능(AI) 개발 등을 추진한다.

현재 치유객 테라피실 배정·예약·이용·대기 현황 등을 관리하는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과 실시간 매출·통계 현

황을 관리하는 완도해양치유센터 테라피실 운영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월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완도해양치유센터 운영 자동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완도해양치유 빅데이터 수집·분석 관리 시스템은 해양치유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해 구축하며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양치유 건강 데이터 맞춤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해 해양치유 건강 정보 구축, 개인 맞춤형 건강 분석·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구축되면 해양치유 프로그램 효과성 및 유효성 검증으로 수준 높은 해양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만의 차별화된 해양치유 서비스 모델 구축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의 명성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해남군, 문화누리카드 지원
1인당 14만원

해남군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를 위해 '2025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한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6세 이상(201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에게 1인당 14만원을 지원, 대상자들은 문화예술 공연 관람, 문화체험, 국내여행, 스포츠 경기 관람, 체육활동 등 다양한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카드는 전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해남군 지원 대상자는 총 5424명이다.

오는 11월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와 문화누리카드누리집(www.mnuri.kr), 문화누리 모바일 앱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는 해남군 내에서 지난해 100% 발급됐고 93% 이용률을 보이는 등 우리 이웃의 문화생활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도 모든 대상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평생학습 수강생 모집
18일까지 선착순 접수

강진군 평생학습센터가 12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상반기 평생학습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민 대상 설문 및 수요 조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 평생학습 39개 강좌를 개설했다.

개설 강좌는 건강, 취미, 직업 능력 등 3개 분야로, 건강 분야는 △요가 △기구 필라테스 △라인댄스 △발레 △댄스스포츠 △춤댄스, 취미 분야는 △밀반찬 만들기 △서예(한글·한문) △프랑스자수 △어반스케치 등이다.

군은 직장인들의 수강 편의를 위해 야간반을 개설했으며 특히 올해는 직업 능력 과정을 신설해 실버놀이지도사, 심리상담사(2급), 바리스타(2급), 정원디자이너 자격증반을 마련했다. 최근 파크골프 인기를 반영해 향후 파크골프 지도사 반도 개설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자격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수강생들의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일자리종합센터, 관내 유관 기관 등과 연계할 계획이다.

신청은 강진군 교육정보 홈페이지 또는 강진군 평생학습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다. 강의는 오는 3월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해 6월 말까지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다만 일부 실습이 필요한 강좌에 한해 소정의 재료비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 고시·공고 또는 교육정보 홈페이지(평생학습-강좌신청)를 참고하거나, 총무과 교육교류팀(061-430-3725)에 문의하면 된다.

강진군은 평생학습 강좌 수강이 어려운 면민을 대상으로 '면으로 찾아가는 배달강좌'도 운영할 계획이다. 7인 이상 면민이 모여 학습팀을 구성해 수강신청 기간에 듣고 싶은 강좌를 신청하면 강사가 교육 장소로 직접 찾아가 강의를 진행한다.

강진=김윤복 기자



실버 요가 전문 강사가 어르신들에게 요가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신안군은 지역민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청춘 건강교실과 갱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찾아가는 청춘·갱년기 건강교실 운영

신안군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경로당 청춘 건강교실과 갱년기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이번 건강교실은 관내 어르신들이 모이는 경로당을 중

심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되며 전문 외부 강사가 주 1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운동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도서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 운영함으로써 군민이 고르게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로당 청춘 건강교실은 신안군 14개 읍면 98개소 경로당에서 운영되며 실버 요가와 근력강화운동 등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운동과 건강관리 방법을 지도한다.

갱년기 건강교실은 갱년기에 접어드는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8개 읍면 복지센터에서 운영되며 라인댄스, 소도구 운동

등을 통해 건강하게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 지역 특성에 맞춰 지역주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터 중심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강진군, 토지이용 효율 제고 '지적재조사' 착수

강진읍 장동 등 5개 지구

강진군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사업지구는 강진읍 장동, 도암면 청룡, 도암부흥, 만덕·작천면 내동 5개 지구 1147필지로 대상지역의 실시계획 수립과 주민설명회

는 지난해 12월 완료했다.

현재는 측량 수행을 위한 기준점 설치와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정책이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맹지 해소, 건축물

저축 및 경계분쟁 등 토지관련 고충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국비 2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수행하며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 설정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내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 발송을 통해 안내했으

며 전화 문의 또는 군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 방문을 통해 의견 제출 및 문의가 가능하다.

김동진 강진군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주민 간 경계분쟁을 해소, 재산권 행사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의 목적에 맞춰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군, 빈집·경작농지 임대한다

만원주택 4개소 등 입주자 모집

해남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과 초기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빈집과 경작 농지를 임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은 해남군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해 개조한 농가 주택으로, 2~4인 가족이 살

기 적합한 규모다. 위치는 옥천면 1개소, 황산면 1개소, 산이면 2개소이다. 임대용 농지는 화산 연곡리 약 6500㎡ 1개소, 해남 백야리 약 7000㎡ 1개소 등이다.

임대용 주택은 해남군에 전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입 가구 또는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귀향 가구이면 신청할 수 있고, 2년6개월 임대 후 갱신 1회가 가능

하다. 최대 5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연 120만원, 임대료는 월 1만원이다.

농지 임대 신청 대상은 해남군 전입 5년 이내이거나 전입할 예정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 65세 이하의 귀농인이다. 농지는 해남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면적과 개별지가 기준, 사용요율 등을 종합해 책정한다.

주택 및 농지 임차 희망자는 오는 21일

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의 군정 알림란에서 '2025년도 땅밭 빈집 농지 플랫폼 구축사업 주택 및 임대농지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부담 없는 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를 제공하고, 초기 귀농인들의 영농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